

5 분 자 유 발 언

-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경제의 온기와 상권활성화로 이어지도록 -



고성군의회
(양애정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양애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고성군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도전한 끝에
상반기 16개, 하반기 9개 지자체만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확보한 기회를

단순한 여행경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성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사업비 10억 8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외 관광객이 고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고 관광지를 방문하면
사용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이 고성에서 돈을 쓰고,
돌려받은 상품권을 다시 고성에서
쓰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광지원과는
결이 다릅니다.

잘 운영한다면 방문이 소비로,
소비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기도 매우 좋습니다.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1일간 열리는
공룡엑스포와 정확히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공룡엑스포와
상족암 군립공원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송학동고분군,
마동호 국가습지와 독수리 생태체험이 있으며,
갈모봉 자연휴양림에 이어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46실 규모의 고성유스호스텔까지
마련되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이
차근차근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방문만으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곳만 보고 돌아가지 않고, 한 끼 더 먹고,
하루 더 머물며, 지역 상품을
하나 더 사게 만드는,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룡엑스포 중심의 단일 관광에서 벗어나
고성 전역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공룡엑스포 방문객이 고성읍 전통시장과
송학동고분군, 상족암과 공룡박물관,
갈모봉과 해양치유 관광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테마별 맞춤형 연계 코스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의 소비가 실제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200개소가 넘는 가맹점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친절·위생·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객 맞이에도 힘써 주십시오.

아울러, 제로페이 결제 내역을 교차 검증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체계도 초기부터 촘촘히 갖춰,
환급제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번 찾은 관광객을
다시 찾는 관광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의 사용처와 지역 농특산물,
다음 계절 축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룡나라쇼핑몰과의 연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공공부문에서도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고성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데이터로 축적·관리해 주십시오.

신청 인원뿐 아니라 방문지와 체류시간,
업종별 소비 규모까지 분석해
다음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과
고성군만의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으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광객 한 사람이 고성에서 하루 더 머물고
한 끼 더 먹고 지역 상품 하나를 더 사는 일이
소상공인의 매출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세심하게 준비하여,
이번 기회가 우리 군민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